

음고 내려다보나 얼골은 더욱 아름답다운래도 그 형언하기 어렵더라. 「곧이 주무 시는것을 써워서 불안합니다. 오늘은것은 잠간당신씩 할말씀이잇서々 심분동 안만 말씀하고 갈터이니 엇지알지마시요」 하며 만경이는 허락하기를 기다리고 서서있다. 「글세일전에 도 그만치 알아듯도록 말을하였는데 왜 또 왓단말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김경연으로 하여야 나 조츨 줄니여 못견디겟스니 이를엇지하면 좃탄말씀이오 나 다려 이렛케말을 하단말이야요」 「그런이약 이논 나는듯지안소」 만경이는 원당흔듯시 또논어리광 부리듯시. 「글세 왜그 리시오 너모야속하구료」 「안이 오늘은 상처가더압과셔 못견디겟셔요」 「엇제 셔 그리셔요 도로도지시는가요 그럼편안나누어게셔요」 하며 이려안지잇는슈 일을 등을밧들고 고기를밧드려 저리에 편안이 누이고 저기도 그제야 비로소 표의에 걸어안는다. 「당신압해서 나가 이런말씀을 엇줍기는 안되엿지요만은 일전에 김경연씨를 여과셔만나셔 못치긋지요 문밧게나가셔는 는는 다른디어 디를 잠간단여가려고 히드니 김경연씨가 의론할말이잇스니 제말나하고 흘씩 가서 점심을 먹조고히요 그리셔할슈업시 신을너긋지요 일본국슈집에를 드리 일당신을 의심합디다 나고당신하고 서로조와 지닌줄로 말을자고히요 엇지 디답하기가 성가시려운지 몰낫셔요 그량반도 나히로만 말을하야도 그만경위

는 알듯흔디 나를 무엇으로알고 하는말인지 나가 기성삼과와 갖치 밍음하는 게집다리고 놓듯이하니 그것도 흥분두번이안이라 일상 만나는씩마다 그러케 나를 디점하니 나는엇지히셔 마음이듯겟소 엇그제는 너모도분하고 원당흔야 셔 올엇지요 그리고다시 그런말을 아니하도록 나가그저리에서 김경연씨를보고 디단이 말을하였지요 그러하지만은 그량반이 성품이 또 이상하야셔 노갑 이을로 당신에게로 무산척망이같은지 알수업스나 너일노 인연하야셔 당신이 그량반에게 시비를듯게되면 너마음에 불안치안소 그리기에 미리나가 이려할 말씀은하야 두는것이니 이후에혹시 무삼일이 잇드리도 나가지고는 희망을마시오. 이다음에 김경연씨가 무산말을 당신다려할는지 모르지만은 이리 생각을하야 두었다가 잘 디답하야 주시구료 당신이 조곰이라도 나긋흔것을 마음 두고 게시는것조흔면 그런말을 드르시더리도 오히려 낫겟지요만은 원슈 못치 시려하는 너몸으로하야셔 남에게말을 드르시는것이 얼마콤 당신의마음 에는 불쾌하시겟지요만은 당초에 나 갖흔것이 성겨나셔 당신을엇지못하고 이 렷듯 싸로운것이 전성애 무산업원인줄로 알아 주시구료. 당신도 너업원이요 나도 당신의업원이지요 무산척됨으로 우리두업원이 이제상에 성겨나던지 알 수업소그려」 하며 원당흔기를 너여물고 괴운업시 먼산만 바라보고 심난흔괴 석이 얼골에 가득하다 슈일은 보지도안이하리며 디답도안이하고 목우인긋치누

이잇슬뿐이라. 「여보 슈일씨 당신다려 전에 한번 나가 이렇도록 당신을 잊지 못하고 생각을 하니 그런줄이나 잊지 말고 알아달라 하시니 당신말씀이 결단코 이져바릴리가 업다고 하시지요 그 생각을 하시오 네 슈일씨 설마 잊기야 하시겠것소」 만경은 압호로 점々다가 안지며 희망을 듯이 못는 말에 슈일은 예스로서 대답한다. 「이져바렸슬리가 잇소」 만경은 슈일의 얼굴을 원망하는 듯 미워하는 듯 사랑하는 듯시 드러다보고 잇다 이색에 스름의 소리잇스며 밖으로서 문이 열리나 인다 간호부 스름이 방안으로 드러서며 문밖에서 잇는 늙은남자 한 스름을 인도하는 듯 그 노인은 고기를 기우려 방안을 드러다보더니 절문녀자가 잇슴을 보고 다시 밧그로 나아스며 간호부를 손질하야 부르더니 무엇이라 감은이 말을 일으키고 명함을장을 너여준다. 만경이는 엇더한 스름이 츠즈 왔는고하고 잠간 그 얼굴을 살펴보니 약간머리에 빅발은 생성하고 얼굴은 슈척하고 주름이 여거거기 잡히엿스나 의포와 외양은 잠깐보아도 점차는 노인이라 만경이는 엇더한 스름인지는 졌서히 아지못하나 귀반이 문병을 음인가하야 얼푸시 몸을 일으켜 자리를 스랑하고 환편엿혀서 잇다 슈일은 간호부가 전하는 명함을 밧아가지고 무심이 드러다보니 심덕(沈澤)이라. 슈일은 홀연 얼굴이 변하며 놀네기를 마지아니하고 몸을 도로혀 벽을 향하야 누으며 명함을 엇던 손이 스스로 떨녀나 오며 불이듯하는 분기는 가슴이 머여 질듯하다 그러나 한량업는 회포를 티표

하는 눈물한점은 비키머리에 썩러진다 간호부는 슈일의 괴석이 이상함을 보고. 「그손님을 이리 드러오시리요」 「나는 몰나」 「네」 「이런 스름을 나는 모로 겐다는말이야」 스름의이목이 업슬것스흐면 썩져서 바틸 명함이라 드립다하며 너여던지미 명함은 홀々 날나 마로우에 썩러진다. 슈일은 소스나오는 분기와 쌀어오르는피를 간신히 전정하고 입을 악물고 눈을 감았는디 몸에 덥혀잇는 이불은 바름압헤 나무입시듯치 흔들린다 간호부는 슈일의 비키머리로 얼굴을 갖가이하며 목소리를 나작이하야. 「모르시는 량반이이요」 「응나는 그런 스름을 도모지 아지못하야 다른 스름을 찾는것을 잘못은것이 지어셔 나가서 모른다고 가라고히요」 「그리도 그손님이 당신을자를알고 츠지시든데요」 「글세 아모러든지 그러케만 말을히셔보시요」 하며 간호부를 핀잔주듯시 하는말에 간호부는 무효하야. 「그러면 그러로 말하겠습나」 간호부는 마로에 썩러져잇는 명함을 다시집어가지고 쥬져서 하향면서 밧그로 나아가 슈일의 말을 전한다 심덕은 문밖게잇서 드러오라하기만 고티하고 잇다가 그와스흔 회보를 듯더니 명함도 밧지은이하고 환참동안은 탄식하고 잇다. 「허々나를 모를리가 업는디 여러히가 된일이니서 이젧는지도 알수업지만은... 그러면 나가 좌우 간 죽점으로 드러가보겐소 리슈일이 쓰는방이이방은 정연하시오」 하며 문을 열고 들어간다 교의에 걸어엿던 만경이는 의외에 그손이 드러움을보고 지

리를 피하여 한편으로 가서섰다 심턱은 슈일의 누어있는 옆으로 곳아가 가서. 「이이 슈일아 오리맛나지를 못하야셔 니일홈서지 이저바렸느냐」 슈일은 못드 른체하고 도라누어있다 만경이는 그거동을보고 무산연유는 있는일이나 슈일의 비정현성품을 저손님은 아즉모름이로다하고 은근히 속마음으로 웃기를 마 지아니한다. 「이이 슈일아 너드니야 좀 니얼골을보아라 너가발셔 츠쳐왔것지 만은 네가잇는곳을 아지못하야셔 항상겨정으로 지너엿드니 일전에야 비로소 네거취를 알앗드 그러나 그간에 몸을티단이 닳쳤드드니 조금나으냐」 오히려 슈일은 티답이엿드 심턱은 방음을도라보며 드른사람은엿고 드만 양복입은절 문너즈 흐스름이 잇슴으로 마지못하야서 만형을향하야. 「이스름이 아마잠이들 엿지요」 조금도 잔붓그림이엿는 만경이는. 「글세 웬일인지 모르겟습니드」 하며 문경은 슈일의 와상엿으로 갓가이와셔 드려드보니 슈일은 눈물이 두쌍에 흘넛는티 누기어나오는 우름은 소리만먹음고 두억지는 을나드나렸드흐드 문 경이는 무산연고그 잇슴인지 아지못하나 피이흐일이라 생각하엿더라. 「여보 시요 손님오셨셔요」 슈일은 간신히 입박게나오는 목소리로. 「악마도 말하엿 거니와 도모지나는 아지못하는양반이니 어셔도라갑시스고 엿쥬어쥬오」 문경 이는 슈일의뜻을 짐작하고 다시 김히못지도 아니하고 심턱의 얼골을 바라보 며. 「혹시 잘못츄자오지 으으셨는지 모르겟스나 이양반씩셔는 당초에아시지

를 못하겟드시는티요」 심턱은 긴수염을 두손으로 비비면서 탄식하드시 우음을 짓는드. 「허허너마 아모리하엿기로 오류년사동은애 그닥지 망녕은 나지아 니하엿는티 으는스름인지 모르는스름인지 그것도분간을못하고 츄쳐왔슬리마 잇소 그랬치문은 니얼골을 당초에 모로겟드흐면 흘슈업지문은 늙은것이 일 부러 네얼골을 보양으로 이렷게츄쳐왔스니 그싱각을하고 잠간이라도 니얼골 을바라보으드고」 무엇이라 티답이 잇슬는지 귀를기우리고 기도리니 슈일은 도모지 티답이엿고 숨스소리도 들너지으이흐드. 「이러도록 간절이 말을하야 도너는 듯자으는단말이나 성품도 편협도흐드. 그러나 이이 슈일의 잘드시싱 각하야보으라 네마나를 엿더케싱각 하고 잇는자는 알슈업드문은 네마 지금 서지 흐일과 오날니게 하는것시 으모리 생각을하야도 온당흐드 흘슈마 업드 스실의 잘잘못은고스하고네마 이늙은심턱에게 티하야셔 이렷게흘슈마 잇나 나 물론너도 네경위것은 흘문흐말이 잇슬터이니서 그말도 너마오날 자셔히 듯고자하야셔 츄쳐왔고 나도 조고문쳐 너드려할말이 좀잇드 그러나 오날 일 부러 츄쳐온것은 너를 칭망하려는뜻으로 온길이니라 네몸을위히셔 의론츄 로 온길이드 너는으모리 나를바릴지언딩 나는츄마 너를바리지못하고 이렷케 늙은몸을 씌우고왔구나 당초에도 나는조금도 네게 션셴히흐일이업드 오날날 이나 오년전이나 너마음은 일상 흐모양이드 엿지하야셔 조금인들 변하엿겟

너. 절문스름의 혈괴로 전후를 기피성구지이니하고 단지혈결갓치 오히려
 것을 나는 진정으로 마엽시 성구하엿드 그러나 온눈늘사지라도 그 마음이 풀
 니지이니하고 잇는것을보니 마 더욱의외로구나. 처음부터라도 니마게 은혜
 갑기를 바라고 잇던터는 아니로되 네게 도로혀 원망받을줄은 정말 뜻밖기드
 부자갓치 서로화목이 지니드마 늙은몸이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우리니외마 죽
 은후에는 집은일을 네게드마 의탁하자하엿더니 하치은일을 마지고 감정을
 니여셔 집은에서 나간후 소식사지 안어바리니 니마음이 엇더하겠니 우리
 니외마 모여은젓스면 네말이요 자나셔는 네성구이드 니마음갓흐면 지금이라
 도 전과갓치 집에와잇셔서 흠씩지니고 심푸는 네마음이 엇더한지 이죽도네
 마음이 풀니지이니하여셔 듯지아니하면 엇지할슈업는일이니사 니인들 엇지
 하겠느냐. 너의 아버지 산소에라도 마셔 너를어려셔 드려드마 오날날사지 량
 룩하던 리력과 스실을 말슴하교는 지금사지라도 이렇듯 성구를 하지문은
 슈일이네 그마음을 밧지아니하고 이리리하니 본뜻은은리로드 인력으로 엇
 지할슈마엽스니 이후에는 관계를 쓴것노라고 다하에게신 너의선천씩 이런말
 슴을 고흔터이드. 나는 또한마지 생각할일이잇스니 다른말이니라 마령이
 늙은 심탁이 마 잘못한일이 잇다 할자라도 리슈일이라하는 스름은 의리로말을
 할자라도 심탁의 한번실슈썸은 엇더케던지 참고 용서할문하드 문일 또 참을

슈마 엽슬갓갓흐면 온당하게 일을조처할것이지...는도 말을하면 너너히 할
 말이 이렇케 문이잇드 그러는 오날은일은 이말을하자고 온것이 아니라 니마
 으모리 잘못한일이 잇드리도 용서하야셔 마음을 푸러 바리기를 바라는바요
 또는 전이네 지금이네 니마음은 일반이니 제일 그마음을 알으달나 하는말이
 드이이 슈일으 오리간만에 문나스니 이늙은것에 엽골이느좀 치여드 보렴으
 는 슈일은 오히려 입을버리지이니하드 심탁은 답답함을 의이지못하야 몸을
 일어 도라누어잇는 슈일의엽골을 드려드보고자하야 자리압흐로 갓마이니
 간드. 최문경은 스실의니용은 저저하이지못하는 그손에 이야이에 넌하야 듯
 건티 디강은 스리마당연히 생각하엿고 또는 슈일이 마 눈물만 흘니고 디답이
 엽슴을보미 가장의이 아는스름을 진짓 모로는체함이니 이는필연코 기쁜스정
 이잇슴이 분명흐줄노 헤아리고 스모하는 슈일을위하야는 처할경우를 구원하
 리라 생각하얏다라. 슈일의 비키머리를 드려다보며 만경이는 심탁이 말하기
 전에. 저는 여귀 이양반 병구원초로 와서잇는 스름이올시다 망신씩셔는 누
 구신지는 자서히 알슈업슴니다만은 요스이 몇칠적는 병인이 열기가 심히셔
 갓금 섬어도하고 올었다가 성닛다가 엇던터는 밋천스름갓히요 고기를 기우
 리고 만경의엽골을 바라보며. 허사병이 그닥지중하게 들엇단말슴이요 네
 덕사로 그중계가잇셔요 악가부터 듯조오니사 리슈일싸하교는 년터로 천하신

스이라노것을 모로는스름이라고해서 티단이 실례가 되엿습니다만은 그것도 원정신이업셔々 현일인듯하니 아모조록 미타히 아시지는 마십시요 그리하다가도 원정신이 도라올썩가 잇스니서 후스날 어려우시더티도 흘면다시오시면 조흘듯호오이다 오늘은 당신명합이나 혼장주시면 제가가지고 잇다 정신가이 도라온후에 보이고 저저하말심을 호겿습니다」 「네 그러도록 말슴을호시니 고압습니다 만일 슈일의병이 그러하면 말을호야도 알아듯지는 못홀터이니 이다음날 다시오지요 나는 심탁이라 호는스름이요 명함은 이러하니 슈일이 가정신이나거던 나왔드란말슴이나 호여주시 그러나 당신은 누구신지는 모르겿스나 김정연씨호고 친척이되시는 양반이신가요」 「안이올시다 친척관계는 업습니다만은 김정연씨와 리슈일씨와는 년리혼집안갓치 정다이저너여셔 오히려 서투른친척보다도 낫지요 그리고 우리집이 요근처에 잇는것들로 로긋금 문병와서는 시중도 들고호지요」 「네 그러시요 나는 다섯히 동안을 서로 어긋나서 슈일이와 만나지를 못호엿더니 요스이들으니서 슈일이 가 작년애 장가를 드렀다 호는말을 들엇는데 그말이 정말인지요」 심탁은 최만경의 아름다운얼굴이 능히 스름의정신을 현후케홀지니 슈일의병을 위호여 친히와서 간호함을 녀심으로 의심호았는고로 업는말을 지여서 무릅이러라。 「그런줄을 몰나요 슈일씨가 장가를갓스면 우리가모르고 잇섯슬리가잇

습니다」 「나는 장가를 든줄도만 알고잇섯는티요」 호며 심탁은 녀름에싱각호되 그미인의 용모와 동작을 보건디 엿드호스름에 썰도안이요 안히도안이요 학도도안이라 찬々호의복은 몸을파는 계집인가 의심이 이러나기도호나 인스행동을보면 그도록 천호인물은안이니 심탁은 용이히 그녀저의 리력을알고저 호나 엿지못호다。 그러나 정다이저너노라 병구원호노라호은 모다 실상이안 이요 정당호도리로서로아는 스름이아니라 갑히 스름은 아지못호도록 추호관계를 미진저이라 싱각호다。 만일그러하면 슈일의몸은 더욱 타락함이니 엿지질기여 전일 인년을 다시이르리요 좌우간오늘은 집으로도라가서 그너용을 저저히 탐지호고 갑히연구호후에 다시오도 늦지안이호리라 싱각호엿더라。 「그러면 노는가겿습니다 일간호번 또오지요 그러나 입디까지셔로 말슴은호엿셔도 뉘신줄은 모로고 잇섯소그러」 호며 심탁은 교의에서 몸은 일어스다 만경이는 손가방을열더니 조고마호녀저의명함을 녀여주며。 제일호은 그것 이올시다」 「네 최만경씨라호는구료」 심탁은 명함을 바다보고는 더욱이 최만 경의위인을 의심호다 계집의몸으로 방저히 명함을 가지고잇스며 또는영셔 (英書)로 최만경이라 써셔 잇슴이 더욱가증호다 응티가여류호며 교제가익 속함을본즉 호은 서양가셔유학호고 건너온녀저인가 의심호다 그러나 마춤이 일정호리호는 허득지못호고 병원을나서 심탁은집으로 도라가니라。 손을문

밖까지 전송하고 만경이는 방안으로 들어오미 지금것죽은다시 누어있던슈일
 이가 열기에뜨인스름못치와상우에 옷투히 일어안져있는데 슈척하야 썩만남
 아잇는 손으로 주먹을 힘껏쥐이고 두눈에는 피스발이 왕리하며 원통하고 분
 혼괴식이 열골에 가득히 낫는다 만경이는 슈일의 모양을보고 삼작놀녀
 압흐로가서 붓들며 「여보 웨이리하오 누어게시오」 「글세웨이리오 귀치안
 케」 만경이는 편잔을 오히려 달게네이고 아양부리는 우슴으로 슈일을 드려
 다보며 「지금니가 림시변흥으로 디답을좀 잘합디가 그런공은모로구셔...」

데칠장 投身 (투신)

뺏은떠러져 열미를밧고 임시는피여 룽음을 일우엇는데 김산은형 지덤장으로
 평양디동강변에 집을건축하고 잇는 김중비는 평안일도에 저정의세력이 무지
 키발싸스치듯하야 뉘안이천을하며 뉘아니친코즈하리오 오날은 디동강선유요
 니일은 부벽루의시회라 밤은나을삼고 낮은 밤을삼아 집에 들어오는날은드
 물고 청루주스에서 날을보내고 몸을타락하되 슈이는 조곰도 말니지안이하고
 들어오던지 나가던지 관계하야 말을하지안이하니 이른바 일기려관의 주인과
 又치되었더라 이날도 김중비는 부벽루아리에 비를써이고 옥향과 혼가지로
 종일도록 질기다가 석양에 일으려셔 비로소 집에드라왔더라 김중비는 슈이
 를마자온지 임의스오년이 넘엇스되 혼번도 몸을갓가히 하지못함을 항상한탄

하던터이라 이날 주기가 반갑에나 일으려셔 집에도라오니 년리로 슈이에게
 향하였던 불만족하마음이 일어나며 안이불썩에는 미웁고 분노하다가도 임의
 도라와 슈이의 화려한열골과 어엿분티도를보면 처음에 먹엇던마음은 히스발
 에 눈독듯하고 도로혀 슈이의뜻을 거스릴가 겁하였더라 이제 비로소 도리와
 셔 저녀밥상은 물니치고 술상만 압히노엇는데 슈이는 혼편엽에 안져셔 눈썹
 을 집루리고 질겁지아니혼열골을 짓고있다 김중비는 술잔을 녀여밀며 「여기
 혼잔 쌀아주어요 밥냈져릿케 모주먹은 교양이상을하고 잇스니셔 녀가집이라
 고 들어오니 무산즈미가 잇겟소 즈연이 조와도나가고 엇잔아도 나가고 집의
 잇슬날은업지 마누라가 관상좀 퍼여보는날이잇스면 녀가 춤을추겟소」 슈이
 의 손목을 잡아익근다 슈이는 잡힌손목을 썩리치며 열골빛을변하고 「점잔은
 터에 왜이리상업시구오 그저말슴은 못하시고 천척하게하시니...」 녀가기성이
 요논단ियो 술은즈기가 짜라즈시든지하지 번々히 나다려 짜라달나고 그리하
 여」 「또 성니엿나 다른말은 다야니 들을지언딩 손으로 짜르논술이야 못할것
 이 무엇이오 느는 그리기에 도모지즈미가업셔 오날도 집안에서 잘마음이업스
 니셔 지금부터 또 나갈터이니 작별슈로 혼잔만 쳐주구료」 슈이는 호을노티
 우는가슴이 누를향하야 말을곳도업고 다만 혼저한단이요 혼저근심이라 스름
 이 오는것도 귀치안코 남의 질거하는것도 보기실타 마음을진정키 어려운씨

는 혼숨과 눈물노 벳을 숨느러 이어날 김중비의 곳지 천압이 구는 것을 진정으
 로 쓰리고 시려하나 혼잔술을 주면 나가갓다 하는 말에 다형이 역이기를 마
 지 아니하여 넋이 끼지 아니하는 손을 마지 못하여 주전자를 들고 한잔을 가득이
 부었더라 「앗다 술치는 솜씨도 짤은 비왔다 업지른 것이 두잔이나 되겟네 이러
 하니 술잔을 먹으려야도 집에서 먹는 생각에 업고 밧그로만 나가고 십
 지」 「그런티 누가 여겨서 잡슈라고 합더니 나가서 만이 잡슈구료 즈미있게
 시리」 「저것이 못술말이란 말이야 명식이 서방이라는 것이 집에 있지 아니하고
 꺾금 밧게 나가서 보면 아뭇조록 권하여서 그리 못하게 하는 것이 녀편네의 도리
 요 아뭇조록 나가서 방탕하기를 바라는 것이 안히 된 사람의 의무라 할슈가 있나
 그러나 이 술은 맛이 뜻치 못하나 일전에 쓰셔 두엇든 술판주를 두어병만 쓰니
 여오오」 순이는 일어서서 벽장을 열고 술판명을 내려놓는다 김중비는 막이를
 췌이고 류리잔에 혼잔을 넘도록 부어 주며 「여보 이 술은 녀편네라도 먹으면
 그리 취하지도 아니하고 몸에 도 유익한 것이니 한잔 먹어보오」 「먹을 줄 모르는
 녀편에게 술은 왜 이리 권하시오」 「글세 이것은 술이라 도 술이 아니라 하는 말이
 야요 각항실과로 만든 술이니 취하지도 안커니와 설영 좀 취하면 무산 상관
 이 잇소 죽지는 아니 할터이지 그 청도 못들어」 하며 류리잔을 순이의 입에 다여
 준다 순이는 김중비의 손이 즈기의 몸에 갖가히 오는 것 처치 마음에 약슈가 철노

하는 것 처치 실인감염이 이러는 다 마지 못하여 술을 밧아 들기는 하였으나 엇지
 이 만은 술을 다 마시리오 하며 주저하다가 다시 김중비를 일분이라도 속히 하여
 보시고 하는 마음에 죽기를 혼하고 한 입에 마시여 바렸더라 「인제는 말심으로
 술을 혼입에 다 먹었스니 어서 사실 데나 보시오 나는 요전 처치 이 술이 취히
 서 반은 죽을 췌」 「이러케 넋이 뺏지 못히서 이 쓰는 사람은 도모지 처음 보았네
 같씩 되면 어련이 같」 그러나 술을 먹었스면 나를 또 쓰러 주어야지」 「는」 마셔
 즈미 잇는 티 마셔 잡슈지 웨여겨서 이 리 슈션을 피오」 김중비는 티 답도 업서 다
 시 잔에 술만 짜르면서 입으로는 코스노리를 부르 고 있다 「이 술 혼잔 잡으시
 면 만수무강……」 하며 잔을 놓어 순이를 권한다 순이는 삼작 놀녀 몸은 피하
 려 하는 것을 스스희의 국제인 힘으로 허리를 세여 안겨스니 그 물에 걸나 인 고 기
 의 몸이라 엇지 능히 버셔스리오 「니」 다 권 주마를 다 하였는 티 이 술을 안이 먹
 으려고 혼단 말이요 이 술을 아니 먹으면 못치 아니 할테야」 순이는 다시 신세의
 혼탄이 는 온다 부모도 다시 원망하며 즈기의 몸도 스스로 췌지 며 엇지 하여 이
 몸이 이와 처치 천인 만인(千仞萬仞) 되는 함정에 빠져서 버셔나지 못하는 고 하
 는 생각에 소셔는 오는 것은 눈물이라 「이 손을 노셔요 그러면 니」 다 먹을 터이
 니」 순이는 두번 잔을 바들췌는 밧서 첫잔에 술기운이 얼골에 오르기 시작
 하였거늘 김중비의 억지로 결심코 권하는 술을 거의 흡스비는 밧았더라 어

그위장스루구 아모리녀편네라도 이러흐술이야 두어잔은 먹을줄아라야지 김
 중비는 흥중에잇는 무산계척이 성취할것곳치 헛튼우슴이 스스로나온다 순의
 는 뜨거운얼골을 두손으로 기운업시 밧치고 안잤다 그 간신히 얼골을드러 김
 중비를보며 「마실디」 잇다더니 엇지혀서 안이「오」 「츄」 지 그리급할것
 이 무엇인「술이」더 잘아주소」 김중비의 모양을보건디 조금도 나갈의스는
 업고 점々술만 마시려호며 그즈리에 잠시라도 더안지잇스면 술은또 먹이고
 즈홀러이니 츄라리 몸을피호리라호고 순의는 어지러운몸을 간신이일어 디청
 건너스방으로 문을열고 들어간다 그러나 김중비는다시 부들지도아니호고 순
 의의나아「는 뒤스모양만」고 빙긋서 웃고잇다 순의는 간신히 방은싸지들
 어올셔는 정신이잇섯스나 문을닫고 쓰러진후는 정신이업셔지고 다만 향긋려
 운 숨소리만 날뿐이라 아름다운 얼골에는 홍조(紅潮)「은은」듯호고 이마와
 코스등에는 더운땀이 소스난다 저고리의 옷고름은 반쯤이나 푸러져 빅설「
 혼」스름이 들어났으며 발목에 감기여잇는 치마선호로는 빅합뿔봉오리「호」흔 버
 션신은발이 반이나 나타났다 점々 어두어「는 방」에는 하인이 불을혀셔 노
 앳더라 흐시간이나 지니인후에는 짐은이적々호야 달은스름은업고 혼방에서
 는 김중비「 오」히려 혼々 술잔을 늦치아니호고 또 혼방에서는 순의「 술」기운
 에 정신업시 몸을 흐트러치고 잠들어잇술뿐이라 밤은입의 아홉시에 갓「왔

는디 김중비는 문을고요히열고 순의의 누어잇는 방으로 발길을 드러노앗더
 라 밤은 어스세가 되얏는지 방안등불빛은 침々흐디 적々흔권집안에 스름의
 귀척은 조금도업고 누엇던곳에는 지리도 쓰라잇지아니호다 머리는 흐트러지
 고 옷은 어지러워졌는디 목어운몸을일어 부시운눈으로 방안을 도라보니 삼
 걸인지 성시인지 분변키어렵다 몸은 이방안에 확실히잇슴을 아랏스나 정신
 은 중천에서 방황호는것갓다 귀를기우리고 듯건디 강에서 어부의빛소리가
 간々이 들니인다 문을열고 마르곳호로 나아가보니 달은발서 중천에 놓혀셔
 서있다 「아」발서 밤이깊혔나보다」 호며 순의는 호을노 기동에 몸을의지호
 야 달을향호고 물소리바라보며 가슴속으로는 저녀씨에 지니인일을 생각
 한다 안스방에서 김중비가 술을권함으로 마지못호야 수슴비를 먹엇으며 또
 는 김중비가 난잡호는것을 진정으로 밧기실코 혼편으로는 술이취호여 구
 여이나고 현과가나서 건넌방으로 몸을피호여와는디 그씨는히가 아조 어둡지
 도 안이호고 방안에불도 혀지안이 호엿던줄사지는 생각이나々 누가와셔 불
 을 켜노앗으며 어나셔 엇지호여셔 김중비가「...」여기까지 생각함의 순의는
 분함을 이기지못호야 가슴을 두다린다 두눈에서는 원통호는물이 량첩으로쫓
 츄치마압헤 썩러지는디 치마스즈락으로 가리엿다 썩어는눈은 물드린것갓치
 밧갓게되엿더라 아「니」가 그물에 걸니엿도다 합정에 싸섯도다 날기불어전셔

를 다시 그물노건지고 총마진노루를 함정에 싸지게하는도다 잊지하여 써닷
 지못하였는고 오날々 이러흔일이 날것은 큰길곳치 보이거날 잊지하여 이집
 을떠나 몸을 피치못하였던고 녀의몸으로 아모리 괴로이 권한다하기로 술
 을입에다인것이 임의실책이여날 그외에또 이러흔 붓그러운일들을... 아-지
 금와서 한탄흔들 도라오지못했지요 다만월등하고 분흔것은 김중비라 지금에
 일으러 아모리 후회흔들 모다가 즈그의 어리석은연고요 즈그의 결심이 부속
 헛사들이라 스스로싱각하여도 그다지 어리석고 그다지 결심도 업지안건만은
 엇지후여 오날은 악귀가 몸에 침노하였던지 오류년을두고 정결히 가지던몸
 을 잠시 스동안에 더럽혀놔앗스니 가슴을 두다리며 통곡을흔들 한번 못친더
 러운덤은 다시 씻지못할거시니... 부모도 밋을수업다 슈일 의 몸을부락하
 여둔지 임의 오리되었건만은 다시소식도 업스니 만일 오날々 이지경을 당할
 줄알앗드면 슈일씨의 얼굴은 다시보지못하드리도 일즉이 즈쳐라도하여 슈일
 씨의게 향훈의리라도 세울것이요 이몸도 정결하게 디하로 드라글것을 잊지
 하여 이렇듯 슬기가 업섯던고... 희음업시 흐르는 눈물을 씨슬싱각도 안이
 하고 달을향하여 들고잇는얼굴은 지스빗곳치 질녀였다 순이는 뭇을뚫코 마
 로싹헤 걸어안잡다가 무산결심을하였는지 눈물노 거두고 종종용히 이러나 방
 안으로 드러가더니 장문을열고 서웃흔별을 가라입고 다시 손그릇을열고 향

로도몇차례씩 녀여보고는 울기도하여 웃기도하던 슈일의 스진을녀 품속에
 간슈하고 고요히 쓸아리로 나르스며 집안인들이 알가잡하는듯시 발즈초를
 니이지안코 협문으로솟츠 강변길로 나왔다라 강상으로솟츠 부러오는 바름은
 얼굴에 다々치는티 씨々로 스공들의 처량흔소리는 더욱々々 순이의 가슴을
 산란케한다 강변길로 좃츠셔々히 나아가며 고기를 드리우고 나아글제 가슴
 속으로는 여러가지로 처량흔싱각이 왕리한다 「본리에 서울티싱으로 년광이
 불과 이십여에 죽을곳이 그다지도업서 평양티동강을 바라고왔던가 이전성인
 의말슴에 텨작일은 유가활이어나와 즈작일은 불가활이라하드니 이몸을 두고
 향신말슴이로다 티동강우에 부는바름도 오날이마지막이요 선인의 노리소리
 도 오날밤만 드르리라」하며 다시 소스나오는 눈물에 압길이 막히여 한참동
 안은 그즈리에 쥬져안져있다 길가에안차 순이는 몸을 흐트러드리고 체읍향
 다가 째짜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거름을 썰니향야 부벽루압해 다々랏다 달아
 리에 빗초이는 부벽루의 거문그림즈는 순이의가슴에는 더욱시로운 감동이일
 어난다 순이는 날마다밤이면 괴도향던 영명스압부도압해 몸을 단덩이가지고
 나아가 업터이더니 우름에 섞기인목소리로 「런디신명은 박명흔 소첩의신세
 를 불상이녀이시고 소첩의명성을 괴특이 감동향스 소원을 맞추어 쥬실가향
 앓습더니 비록 소첩의죄로 인연흔일이라 슈원슈구향오릿가만은 관티향신 붓

처님의 저비심으로 소첩의 박명을 구하야 주시고 리슈일씨의 평안을 축수하던
 다음이 이제 눈물우에 곱뽀갓치 되얏스오니 이제상에 살아있다 할들 무삼락이
 잇서 구차히 성명을 보존하오며 하로라도 만일 이제상을 떠나지 못하느는 놀에
 는점々 몸만 더럽힐뿐이니 찰아리 이렇듯 무정야속한 제상은 일즉이 이별하
 야 죽는것으로썬 전일사죄를 속하겠스오니 비명에 죽는 소첩의 몸을 런디신명
 은공척히녕이스 이몸이 죽은후라도 은근히 명명지중에서 슈일씨의 몸을 위하
 야 축원하겠스오니 티즈티비하오신 붓쳐님께서는 죽는몸에 디신으로 리슈일을
 도아주옵소서」하며 첩々호신회를 다 일으키 못하며 양협으로 흐르는 두줄눈
 물은 옷깃을 적시이고 답々호가슴은 목소리가 늑기어나온다 몸을일이 스방
 을 도라보며 인척이업슴을 기다리느디 을밀티아리로 부러나려오는 슬나무바
 름은 몸에 죽음을 저촉하느듯 다시 머리를들어 부벽루를 바라보니 오년전의
 리슈일의 목소리가 지금도 오히려 완연이 귀에 들니는것갓다 숨일 십월십스
 일이되거든 눈물노이달스빗을 흐리여늘터이니 만일이달이 흐리거든 리슈일
 이가 어나곳에서 너를원망하고 울고잇는줄노 알아다고 하던말이 귀에정정하
 다 저달은 필연 슈일씨도 지금에바라보고 잇슬지어날 이몸의 오날밤 그스름
 을 위하야 목숨을 바리는줄을 어이상각하리오 이가슴에 싸인마음은 이러하
 건만은 지금도 오히려 이몸을 원망하리다 그스름은 이몸을 원망하고 동년

하날에 붓쳐잇고 이몸은 그스름을 스모하야 서스녀가에서 슈중에 외로운
 혼이되리다 티동강흐르는데 이몸은 잠길지언딩 이가슴에 싸인회포는 능
 히 씨슬괴화가 업슬지니 디하에 도라간후라도 뉘가 이몸을 위하야 무한호심
 회를 그스름에게 전하리요 오년전 이곳이달아리에서 리슈일씨를 작별하던씨
 에 부르지스나 다시 답이업서 훌쳐 떠나간후 소식이나 잇슬가 주소로바라
 던마음도 업서지고 영구히 이몸을 원망하느도다。 만일 그씨에 그스름이 다
 시호번만 이몸의말한마디만 들었드면 이와갓치 서로가슴을 래우지 아니하
 였슬것이 어날... 모다이몸의 지은죄로 미진결과이니 이제다시 한탄함도 오
 히려 어리석은 일이로다 순이는 삼작성각이 나느듯시 티동강언덕으로 룡나
 도에 걸치여노인 슈도철교(水道鐵橋)를 향하야 나아간다 밤은암의 열시의갓
 가왔느디 룡라도는 몽룡이 안기가 덩히여 월석갓치 희미하다 강중에 썩셔잇
 는 어선에는 인척이 고요한디 순이는 철교를다스라 강중을 내려다보고 철교
 란간에 의지하야 슈건을 얼골에다이고 소리업시 눈물이 비오듯흐다 순이는
 묵어운머리를 들어 달을바라고 다시 그부모의 몸을상각한다 압길이 머지안
 코 의지할곳이 전혀업는 늙은부모를 세쳐노코 이제상을 바라려하니 이몸이
 업서진후 부모의마음이 엇더할고 그러나 비록 녀식이라도 이와갓치 어리석고
 미천한줄은 모르고 어려서부터 남의아달열을 브러이녀이지 안이할고 금저

옥엽초치 기르시던일을 생각스록 금창이 메일뿐이라 이렇듯 부모의은혜로이
 심여년을 지냈으나 큰은혜를 다시 보답지 못하고 놀이가 고 히가 지니일스록
 짓는것은 불효뿐이로다 순이눈 손을들어 하늘을 향하고 저비슬며하며 「아바
 님 어머니 불초녀 순이눈 인조후신 부모의얼골을 다시외옵지못하고 영원이
 이세상을 떠나오니 처음부터 업섯든 조식으로 아압시고 과도히 상심치마음
 소셔 이와갓흔 조식은 제상에 살아잇셔도 부모의 효도할과망이 업슬터오니
 차라이일즉이 제상을바리며 후일에제상에 모든불초녀 부정숙(不貞淑)흔녀조
 등을 경계삼아 거울을짓고조 향읍나이다 만일 슈일씨를 만나거든: 「향며
 말그을 잊지못하야 몸을발셔 철교넘어로 바름을조츠 나무입식와긋치 강중에
 더지엿더라 월식은 몽롱하야 슬픔을 먹음엇고물스결은 잔조하야 이원을 전하
 는디 간간이 어선에서는 선인이 조용(조용) 히 말하난 소리만 겨우 들날뿐이라

데팔장

교々히 중던에 소스잇는달은 전세계를 지공무스히 빗초이논디 디동강상에일
 엽편쥬를 썬이고 고기나는 비안에도 남아지빰시 들어왔다라 전일에 리슈일
 과 동창으로 썬는 형데긋치 지니던 백락관(白樂觀)은 그후에 길쥬군슈를 스
 면하고 도라와 스방으로 오유(遨遊)하며 시주(詩酒)로 벗을습아 진소위 단
 원장취불원성(但願長醉不願醒)이라 백락관은 벼슬을하직후후 죽장마해로 조

선반도의 승경을조조 길을떠나스니 처음으로 다스른곳은 평양이라 석일구적
 을 두루초진후에 맛츠 월흥을썬여 술과나시를 비우에섯고 후은 시도 을푸며
 후은 술잔도 기우려 스스로 절기며 스스로 탄식하야 혼손으로는 노를저으며
 디동강 흐르는물스결을 조츠나려온다. 비가맛츠 철교아리에 다스랏슬썬에
 홀연 다리우으로써 슬피우는 녀조의목소리 들니면서 치여다블름도업시 날아
 나리논셔 갓치웃조락이 바람에 나비제며 일위미인이 비스가온디로 나려진
 다 비는 요동향여 출녕거리는 물결이 비안을 적시논디 그미인은 거의괴절하
 엿더라 백락관은 의외의일에 심히놀나며 그여조의 몸을붓드러 일으키며 물
 을떠서 먹이며 스지를 주물너 정신을 초리도록 구호한다 이윽하더니 그녀자
 는 일헛던정신을 슈습하야 간신히 눈을 조곰아치쳐서 스면을 도라보더니 엽
 헤 엿더흔남자 혼스름이 안자잇슴을 놀니여 몸을 벌떡일어선다 백락관은 그
 제야 자리를 피하야 혼편으로 안지며 「어! 엿더흔신 부인인지는 알슈업지
 만은 무삼원동흔일이 잇관디 지중흔 인명을 강물에 던지려하오」 그녀자는
 오히려 목은정신을 초리지못하야 스면을 살피고있다 몽중인가 성시인가 몸
 은 감중을향하고 던지엿거날 엿지하야 비안에 담기엿는고 의심한다 백락관
 은 반취나되여 잇는목소리로 허웃고 슈염을쓰다듬으며 「정신을 초리여
 말슴을하시요 스름이 목숨을 너여바리려 하논디서지 일은는것은 여간흔결심

슴도 여쭙고 의론도 하겠습니 다 「글세 지금 리슈일씨는 엇지 하고 있느냐 하
 는 말이요 평안이 있는 지 평안치 못하게 있는 지 편안이 잘 있느냐 하는 말이요 「네
 ㅡ.....」 「나는 결단코 평안이 있지 못할 줄로 알고 있느니 만일 오날 저녁에
 슌이씨.....아니 김봉희씨의 귀부인이 빠져 죽으려 하는 줄을 알았던들 결단코 이
 빅락관의 손으로는 구하지 안이 하얏을 것을」 슌이씨는 슈건으로 얼굴을 가리우
 고 대답이 없시 다만 능기여가며 울고 있슬 뿐이라 가슴아리싸지 나려오는 거
 문 슈염은 말근바름에 훌쩍 날리며 빅락관은 추하얏던 얼굴이 점々 싸이며 흰
 달빛에 파랏게 비추인다 빅락관은 들고 있던 락시터를 비스머리에 걸쳐 노으
 며 권연을 피여 물고 가장 엄숙할 얼굴로 고기를 속이고 감히 들지 못하는 슌이
 의 모양을 드러다 보며 「슌이씨 너 말을 들어 보오 년전에 리슈일이가 집을 바
 리고 거처 업시 나갈 쎄에 너에게 마지막 으로 부탁편지가 있섯느니 그편지를
 보고 나는 비로소 그쎄의 저서 할 스실을 알았지만은 그편지를 처음 밧아 보얏슬
 쎄에 나도 분홍마음이 어나곳에 비할 슈가 업섯소 그당장으로 슌이씨를 쫓쳐
 가서 보고 아 못조록 망녕된 마음을 도로 기도록 충고를 할 다가가 그리도 듯지 안
 이 할 지경이면 그쎄는 스름으로 되점을 놓지 안이 하고 분홍가슴이 시원하도록
 엇더케 놓든지 분푸리를 하야서 일평성을 다시 시집도 가지 못하게 병신을 만다
 라 노으려 하엿더니 다시 감안이 생각하야 본즉 리슈일이가 그리듯 말을 하느니

도 듯지 안이 할 슌이씨가 황차 너 말을 들을 리 처가 업고 쎄는 슈일이를 막되 할
 이상에는 그리는 김중희에게 팔녀 가는 일기 물 건인 고로 남이 중가를 너이고 사
 가 는 물건에 혐점을 너여서는 도로혀 너의 구하야 할 일이 아니라 고 돌려 청각
 하고 주먹叉치 치미러 올은 가슴에 분괴를 억지로 참고 있섯소」 슌이씨는 오히
 려 얼굴을 드지 못하 고 귀를 기울려 빅락관의 준절한 언론을 들으며 수건으로
 는 자조 눈물만 씨는 다 「여보 슌이씨 ㅡ 나는 슌이씨를 밧기를 그리치는 아니
 할 스름으로 만 알고 있섯지요 그와갓치 서로 사랑하든 리슈일 도 그리에게
 속얏거던 하물며 나갓흔 스름이야 으레히 속을 일이지 나는 나 티로 쎄로 그리
 를 원망할 쎄안이라 리슈일의 몸을 디신 하야서 라도 그리를 원망하겟소 엇지 하
 야서 그리를 원망하 지 안이 하겟소 삼성을 두고서 라도 그리를 원망할 터이지」
 슌이의 입을 악물고 참고 있던 울음은 드티여 능기는 소리 비안에 흐른다 「리슈
 일의 이름을 그릇쳐 노은 것은 슌이씨가 잘못 할 죄원다」 쎄는 리슈일이로 말을
 하드리도 명석의 일지 녀즈에게 속은 것으로 청년의 본뜻을 글하고 목숨을 바
 리는 것과叉치 몸을 락하얏스니 그와갓흔 물지각은 행동에 터하야서는 쎄로
 히 리슈일을 터하야 청망안이 처 못 할 일이지 만은 리슈일이가 아모리 잘못 할 일
 이 있느냐 여도 그리의 죄는 여전히 그리의 죄가 아니요 「그쎄이 아니라 그리가
 리슈일을 바린 연고로 인연 하야서 리슈일이가 오날 쎄 저와갓치 락하얏스니

그대는 녀조의 몸으로 정절을 지키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동시에 남편되는 스름도 그대의 손으로 찢어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디다」 순이는 썰나는 몸으로 빅락관의 얼굴을 잠깐 쳐다보니 빅락관의 노기가 가득한 목으로 순이를 흘기여 보는 모양에 순이는 몸을 들끓이 업는 것까지 구축한다 「순이씨도 감어나성 각하야 보오」 니 말이 조곰이라도 그 큰 것이 잇는가 이 제와서 그대가 전사를 뉘웃 쳤다 하니 그것은 가히 칭찬할 일이요 스름이라 하는 것은 전에 잘못할 일을 뉘웃 치지 아니하면 스름이라 할 수 업지요」 「그러나 오늘 스름의 뉘웃 친 일은 벌써 썩가 느졌소」 「리수일이 가 몸을 타락한 일은 그 스름의 목숨이 업서진 것과 갓흔 것이야 그대는 남편을 엇어서 동거한 지가 말서 오륙년이 되었스니 물은 업서 러지고 그릇은 써여졌는 체음이라 이 제와서는 하는 님의 힘으로도 능히 밋지 못 할 일이니」 「티단이 나는 순이씨를 위하야 서가 업스 마음은 간절하나 그티가지은 죄라 그 보복은 당연이 그티가 밋아야 을을 일이 완다」 「순이는 수건을 찢이지 못 하고 다만 느끼고 잇슬 뿐이라 슬푸다 이 몸의 지은 죄는 그와까지 심할 줄은 아 지 못하고 한번 범한 이 몸의 죄를 그러듯 크게 지었는지 천히 당한 스름이 아 니연만은 이와까지 미이 녀이며 이와까지 원망하니 천히 당한 스름의 마음 은 엇지 녀의 죄를」 용서하리오 슬푸다 녀의 죄는 드터여 용서함을 밋지 못하며 녀의 잇지 못하는 스름은 못 참는다 시 만나 보지 못하는가 순이는 가슴이 찢여 지

고 눈물이 석암 솟듯 하야 거의 말근 정신을 잃엇더라。 리의만 알고 당연한 도리 는 아 지 못하는 필부순이를 미웁고 또한 다시 미웁게 생각하던 빅락관도 순이 의 간절히 뉘웃치고 슬허하는 모양에 동정을 표하는 마음이 움직인다 순이는 말을 일오지 못하고 사기를 드리우고 우상까지 안자 있다。 「그러나 순이씨! 잘 생각하였소 잘 회회하였소 비록 리수일이 가 용서치 아니하며 또는 이 빅락관 이 가 용서를 하지 아니하드 리도 그대의 이 변회기로 인하여서 스스로 저귀의 마 음은 용서할 줄 노아오」 순이의 늦기는 소리는 오히려 굶치지 아니한다 「저귀의 마음으로도 용서를 밋는 것은 남의게 용서를 밋지 못하는니 보다는 얼마큼 나을는지 아 지 못하는 일이오 또는 스스로 저귀 마음의 용서를 밋는 것은 남에게 용서 밋을 장본이 완다」 「니 마음 갖히셔는 아 적도 사사 용서치 못하고 그티를 원 망하고 또다시 원망하겠지 마은 오늘 스름의 그티의 사사 흉중은 니가 모도 살피 고 잇소 순이씨의 마음도 자서히 모로는 것이 아니로터 그보다 더한 리수일의 가슴속을 니가 살펴 보면 가엽고 불상한 마음이 아마 리수일을 향하야서 더하 다 할 수 밋게 업소」 「그러한 고로 나는 그 생각을 하면 순이씨의 고통하는 가슴속 은 오히려 가엿다 하는 마음이 적을지도 알 수 업는 일이요」 「그러나 오늘날 우연 히 이곳에서 못났고 또는 위티한 디경을 구하얏스니 오히려 우리가 전일에 친절히 지니던 정분이 남아 잇던 것인가 보오 전일의 니가 순이씨를 바라 고 밋던

마음은 누의와 못치도 녀이고 개슈와 못치도 알아서 슈일에 게 향흔 마음과 조곰도 다름이 업시 장리에 가서 난 서로 힘을 도아서 제상을 보느고 티산갓치 밋엇더니 호스다마로 모다 와히 마되고 몇히스만에 오늘밤에 만나보니 전스는엇지 알엇던지 반마운 마음은 칭량업소」순이는 비락관의 말마디 마 곳철제마다 늦기여 나오는 우름소리 만들니고 소답을 하려 다 마는 다시 우름에 막히여 말을 일오지 못흔드. 「그러나 저릿듯 머리를 앞전이 썩지고 남의 부인이 되어 잇는 모양을 보니서 조곰도 마업고 반마운 마음이 업서지오. 그디 마 나드려 부득불 할 말이 잇드마가에 무산말을 하든지 들으리드 저릿듯 리슈일이 도 속이엿스나 그슈단으로 나는 또 얼마나 속일는지 티체하는 말을 들은후에 순이씨의 허물을 썩지져주고 또 놓얏더니 순이씨의 말이 김중비에 게로 출마흔후 오륙년이 되었스리 혼변몸을 허락할일이 업고 드만 슈일을 위하야 절기를 지키고 잇드마 오늘저녁에는 우연히 김중비의 음흉한 계획에 빠진티 되어 드티여 몸을 더럽히고 저 결심을 하엿드라니 그 마음은 너 마디 단히 마상히 녀이는 바이요 그티의 희기함을 싣흔나는 깃거워하는 터이니 오늘밤 이비안에 잇는 순이씨는 전일에 순이씨와 조곰도 드를 것이 업소만일 그러치 못하코 순이씨를 너 마 맛났던들 그티에 얼골에 이보드 몇티나 되는 상처를 너 손으로 너여서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그런고로 스스로 마음의 용서를 받는 스름은 남에게도 용서를 받을 시 초라 하는 것이요. 그러흔데 순이씨의 말이 리슈일을 만나보게 하야 주오 리슈일씨를 보거든 너속에 설은 사정을 말씀하여 주오 하지만은 그것은 너 마 하지안 하겟드는 말이요 그리유를 말하며 아모리 말을 하든 하드리도 들을 리도 만무 하코 또 또는 그티의 몸에 허물이 잇는 줄을 알고 잇스면서 그 부락을 드러줄 나도 안이요 너 마 리슈일이 마 되얏드리도 결단코 그티의 허물을 용서할 리 업지. 형 데 못치 천절 혼천구의 원슈와 못흔 스름을 만나 마 지고도 손흔 번을 티이지안이 하코 그져 두는 것은 그티로 이 비락관이 마 전일에 순이씨를 천히 알던 정분이 아즉도 남아 잇는 줄노 알아 주시요. 오리간만에 우리 마 이렇케 만나서 반마운 말은 혼마디도 하지 못하코 듯기실인 소리만 하야서 티단이 불안하오만은 엇지 알지는 마시요」 달빛은 점점 밝 마 지고 바람결은 더욱 더욱 말 마 지는 티 흘너 나려 오느니는 밧서 련광정(練光亭) 근처에 다스랏다. 비락관은 노을져어 한편 언덕으로 비를 디어려 하며 드시 순이의 얼골을 도라보아 엄숙한 언사로 경계 하듯시 말을 하든. 「밤은 점점 느저 마니 어서 집으로 도로 드러 마 시요 이와 못흔 망영된 인심가는 드시 너 이지 말고...: 남편이 잇는 녀 마 밤이 깊도록 밧게나 와서 외인파셔로 수작을 하코 잇는 것이 온당치 못하거니와 나도 너 일야 출술 안주할 고기 잡기 마 느저 마니 드시는 그리흔 지각업는 행동을 하지 말고 김중

비라하는 남편이 잇는 이상에는 아모조록 잘 | 밧들어서 빅년히로하시요」 순
 이는 빅락관의 노젓는 소리를 북돋고 흐트러진머리와 눈물에 어리운얼굴노 슬
 피원정을 하는 듯시. 「잠깐만 참어주세요 제몸의 스침은 당신말씀하마디에 달
 니엿습니다 지금말씀이 집으로속히 도라가라하시나 저는 결심하고 나온터이
 아니하겠습니까. 제가 오날와서 무슨면목을들고 이런말씀을 하게됩니다만은
 엇더흐스정을 말씀드리도 도모지 슈일씨씨 말씀을 잘 | 하야주시 아니겠
 다시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당신씨셔도 제몸은용서치 못하겠다 시는 말씀이
 지요」 「암그렇치요」 하며 빅락관은 비를다시쳐으며 언덕에 내리려한다 순의
 는 노를북잡고 초조하며. 「잠깐만 참어주세요 또한마디 말씀할일이 잇스니
 한마디만 더들어주세요」 「아모리 순의씨가 천언만어를하시야도 되지아니할
 말을하면 무엇을하시오」 「아이고 그케심히 말씀하시지말고 말씀하마디야 못
 드러주실것이 잇습니까 잠깐만 참아주세요」 순이는 강물을 향하며 무산성
 각을향고 잇는지 북々히 안져잇는모양을 빅락관은 보지못하는체하고 엽혜노
 여잇던 술병을거올니 혼란두잔 마시고잇다. 「여보시요 영감 그러면 다시는
 용서하시달라고 말씀은 아니하겠습니까 슈일씨씨도 말씀하시야 달나지아니 할
 리이올시다」 빅락관은 눈을물니여 순이의얼굴을 잠깐바라보고 다시 강적

을 멀니녀여다본다. 한번만 슈일씨를 만나보고 그압해서 제가 잘못흔죄를
 마음뒤로 실견복을 하게됩니다 단지 슈일씨의 눈압해서 죄복만하시 보았
 스면 나의소원이 푸러지겠습니까 제가 죄를복하시기로 슈일씨가 용서하시
 주실니도 업거나와 저역시 용서하시 주시기를 바라지도 아니합니다 바라야
 소용업는일이니시 용서하시 으시더리도 관계는업셔요 나도 결심할일이 잇
 습니다 한번만 다시보고 이 원통을가슴을 쓰다노앗스면... 「순이는 다시는
 물을 흘린다. 「그러하시니 마지막으로 아모리 미운계집이라도 소원을흐면만
 들어주시셔 저를다리고 슈일씨를 한번만 스나게 하야줍시요 당신씨셔 다리
 고가시면 슈일씨가 필경 만나보실터이니 만나기만하게 하야주시면 그씨는제
 가 슈일씨의손으로 죽드리도뜻습니다 당신과 슈일씨와 두양반이 제죄를척
 망하시고 또눈 허치다가 슈일씨의 손으로 이목숨을 씌어주세요 저는 리슈
 일씨손에 죽엇스면 엇더케 조흔는지 모르게됩니다 제소원이 이것이올시다」
 간절흐연스에 감동된 빅락관은 머리를 숙덕이며 긴슈염을 쓰다들는다. 「응
 그것참조흔말이요 리슈일이를 한번만나서 리슈일의손으로 죽여주시기를 원흐
 다하시어 | 그것은 참 잘할말이요 순의씨의 그말하마디는 진정잘 생각할말
 이요 그리야만 스름이지 그러나 지금은 그디가 김중비의 부인이아니요 김중
 비라하는 남편을가지고 잇는몸으로 될슈가 잇는말인가」 「나는 아모리하시야도

「관제치 아니지요」 그것은 또 아니 될 말이지 리슈일의 손으로 죽여 주었스면 원이 없겠다 하는 말은 그 희극을 마음이 티단이 조호나 그러케 말은 하고 보면 순이씨는 리슈일이만 알았지 김종비라 하는 남편이 있는 줄은 모른다는 말이요 구료 남편은 엿지하려고 그러 할 말을 하고 남편에게 티가 나서 의리가 버셔나지 아니 할 것소 좀 생각을 할야 보시요 구료 그러 하고 보면 처음에는 김종비를 인연 할야 리슈일을 속이었고 지금은 또 리슈일로 인연 할야서 김종비를 속이는 것이 니 혼자서 씀아니라 두 사람이나 속이려 하는 세상이니 한편으로는 전죄를 회 회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지으면 일껏 희극을 본의가 업셔시오」 「그서 짓일은 상관업셔요」 「상관업다나 그것은 엿더케 하는 말이요」 「아니오 아모리도 관 계업셔요」 「그것이 안나 될 말이지」 「는는 그서 짓일을 가지고서는 터럭뺏만치 도 마음에 거리쳐지 안습시다 니 몸은 아는 아모렷케 되던지 관계 아니 하고 말 셔 바린지가 을이 되었습시다 그러하니까 단지 한번만 슈일씨를 만났고셔 죽스를 할기가 원이 을시다 김종비야 엿지 되던지 누가 음... 초라리 그리 하고 할 몸 죽어 바린 것이 상척이야요」 「그게 무슨 지각업는 말이오 그와 갖치 몰각 할스름하고는 나는셔로 슈작 할기도 실소 디체 구디는 그러 할 마음을 가지고 있 는 사슴으로 처음에 리슈일이도 그러 할야서 바린 엿지 참진실로 패스 심하고

남의 안히가 된 몸이 남편을 속이면서 구디로 관계치 아니 할다 하는 말이오 그러 할 생각을 구디로 가지고 있을 것조호면 나는 도로혀 김종비를 가엾다 생각 하고 구디와 조호 의 리호 업고 인정도 업는 안히를 엿어서 김종비 그스름의 불행 할스정을 불상이 녀이 겿소 과연 말이지 김종비에게 동정을 표할지 아니 할면 아니 되고 점々 미운스름은 순이씨 할스름이요」 순이씨는 겨양하고 무안 할 모양으로 빅낙관을 바라 보며 「그러케 말씀 하시면 저는 엿더케 희극을 할야 뚝 겿습닛 가 아모 조륙 당신 씨셔 잘 지도를 해 주셔야 아니 할닛가」 「나는 가라 철 슈 업소 순이씨가 잘 생각 할야 보시오」 「아이고 영감 너모도 야속하게 말씀을 할 심나 다 그러」 호을로 슬픈 마음에 순이씨는 빅낙관의 소미를 붓고 체음한다 빅낙 관은 순이씨의 호는 모양에 비참 할 마음을 익이지 못 할야 순이씨의 파리 할 얼굴을 이윽히 들여다 본다 「영감 잇도록 저는 희극을 할 엿는디... 이전 순이로만 성곡 하시고 조곰도 아 주셔요 엿지 할면 조호는 지 방법을 가라쳐 주셔요」 우름 에 섞기여 나오는 목소리는 자셔히 들리지도 아니 한다 비는 스스르 할너 디 동문 을 향하고 내려간다 드시 로 져는 소리만 쟈겨 할 뿐이라 비 안에 있는 두스 름을 서로 향 할야 안자셔 묵스히 말이 업드가 빅낙관은 비로소 입을 열어 길게 탄식 할며 순이를 도라 본다 「여보 순이씨 구디의 하는 말은 모드니 그 저셔히 알 드릿소 결단코 엿지의 말이 은 님 줄로 나도 오 오 모 조륙 조호 방법이 잇스

면 그리쳐주어서 순이씨몸에 유익한일이 잇도록하야 드리고심은마음이 업는 것은 이니지만은 그말을 그르치지못하도 하는것은 너그만일 순이씨의 몸이 되었스면 이렇케하겠드고 성구하겟지만은... 그말은 잠간말을수업소 말히셔 조호일코흐면 말을홀터인디 그말이 남을디히셔 홀슈업는말이요 더구나 남을 그라쳐주지는 못할말이니사 드만 나혼저 속으로만 성구하교 잇는일이요 너속으로만 성구할일을 남에게 이약이하얏드도 도로혀 그릇쳐노으셔는 이나 그라치니만도 못할일이니사 초라리나도 더깊히 생각하야 본후에 조흔방법이 성기거든 그씨에드시 순이씨를 만나셔 그르쳐드리오리드. 너집이 서울어디나 나는 디히에부평초 코흔스름이니사 스희마드 너집이저요 너의 표도 이렇듯 추로하니사 그티로 오마엇더호 일인고하고 놀너여겟지만은 너몸에디하야 도여러마지로 스정이잇셔서 그러하니사 그이약이도 하고심지만은 그이약이 는 이드음에하지 술은 넘어먹지말오, 순이씨마 권고를하니 오날은 특별히 드 른날보드 더취하얏소 이후에는 순이씨의 권고를들어서 정신을 초리올이드. 오모조록 힘을도달나고 순이씨의말이 그러하지만은 나는결단코 의리로그 디를도아 유지못하드리도 순이씨의 스정도너가드 알앗스닛사 그티의몸에 우 의호일이 방히는 홀리가 만무하지요. 슈일이도 그후에는 드시만나지 못하얏 논디 홀번만나셔 물어볼말도 만나잇지만은 홀번도 초저간일이 업지요. 순이

씨는느드려 서울로 호가지가셔 리슈일을 만나보게 하야달나고 하지만은 나 도아모리 이렇케 호가홀듯하야도 디단이 밧분몸인디 호가하게 엇지그리 홀 슈가잇소. 순이씨도 이세상에 살고심은 생각이 업드하지만은 나역시 맛찬가지요 세상이라하는것은 홀번무엇을 잘못된일이 잇스면 일상그일이 살니여셔 아모것도 되지아니하는 법이웁드. 나도요스이 갖혀사는 살아잇는본의도 업지 만은 공연이 죽을슈도 업는일이요 고성과근심으로 세상을지너려 할것코흐면 죽어바리는편이 물론낫지요 무슨사도으로 목숨이 앓가우냐하면 생각할스록 알슈업는일이야」 빅나관과 심순이를 실은비는 말셔 디동문밧 강가에 드앗는 디 빅라관은 락시스티와 술병을 홀손에들고 몸을일어 강언덕으로 느러스며. 오날은 우연히 만나셔 저미잇는 이야기도 만이하고... 그러면 나는 주인집 으로 글터이니 드시또 귀회가잇스면 만납시드」 「아이고령감 잠간만기드려 주셔요」 하며 순이는 빅라관의 두루막이저락을 붓들고 디여달닙드. 「그러면 너일은 엇지하면 토슴닛가」 「결심하기에 달니엇지」 하며 빅라관은 비로소가라쳐주는것코치 말호마디를 일으고 가려하는것을 순이는 오히려 웃즈락을 늦치아니하고. 「결심이라는것은 엇지하는것이온닛가」 「생각하야보면 알일이 지」 하며 순이의팔을 부리치고 디동문안으로향하야 들어간드. 순이는 빅라관의 의뒤를 바라보며 슈건으로 얼굴을가리고 누기여가며 울고잇드.

데팔장 積怨 (적원)

슈일전부터 김정연의 집에는 등불을 켜지켜 일으면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 스름
 인지 아지못하나 늙은부인 흐스름이 시각도 조곰어 기일이업시 초저온드 그
 부인의 년과는 특십여 세나 되었고 얼골에는 줄음이 잡히었스나 육식은 결박하
 고 모양도 단아하야 한번 보미 하등인물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스름가지는 안
 이구나 드만 고이흔것은 칼루흔의복을 광인듯치 몸에 걸치고 이곳 저곳으로
 썰러지고 구녕 나뉘어 있는 형조치마를 접침 < 하야 머리우에 언고 엮히는 조
 고마흔 보통이를 유지에 싸서 세여들고 뒤축은 드업서진 마른신을 질겨싸을
 고 날마다 저녁새가 되면 김정연의 집을 초저와서 부득이 주인을 보겠드나
 공교히 그새마다 맛춤 김정연은 출입하고 집에 있지 아니하얏는고로 마지못
 하야 집으로 도라가니 오히려 마지아니하고 황혼에 이르러 미일 그시간도 있
 지안코 오는고로 김정연의 부인공세도 비로소 이상이 생각하였더라 그녀조
 가 스름일을 연속하야 오는날에는 그거동이 심히 수상하며 그 눈에 독흔과
 운이 가득하야 스름을 바라보며 세업시 웃는우슴은 사름으로하야 금 등에 들
 을 싸여언는것갓호며 두려운마음이 이려는드 그러나 황혼이되면 시간을어귀
 지아니하고 초저오는 우리집에 무산작회를 향려함이 안인가하야 공씨는홀연
 두려운마음을 먹음고 드시는 오지아니하도록 김정연에게 그말을고하야 이날

은 김정연이가 밤갓일을 일즉이 맛초고 일즉이 집으로 도라와서 그늙은녀조
 오기를 기다린드. 「오모리 생각하야도 그녀편네 그 생각지는 못하고 밋척거나
 무슨병이 있거나 흠의드 그티도 얼골을저서하 드려드보면 오조상씨럽게 지
 닌든스름은 으니든게야요 오면은 언제든지 마로에 걸어안저서는 집안을모드
 휘々들너보면서 주인어디가냐고 못하고는 드른말은 하지도 으니하지요 눈을
 휘들너서 스면을 돌나볼제는 꿈에보이든 무신귀신의 눈갓혀서 날마다 녀편
 네 그을새그되면 나는 공연이 겁이나고 무서워져 못견디겠셔요 엇지하야 그
 런밋천것이 날마다 우리집에만을그노 고약도하지」하며 공씨는 벽에 걸니여
 잇는 시계를 바라보니 으죽 그시간은 되지으니하얏습니드. 김정연은 눈썹을
 찻푸리고 흐참이나 생각하며. 「그게웬 녀편네란말이요 이상하일도잇고 나는
 도모저 그러흔녀편네 그을사들이업는디 대체 웬사름이나고 무러보지」 물어
 보으도 디답을으니히요 그모양을보니서 덩신업시 디답을듯심지도 으니합디
 다 「그러면 오늘날전역에도 쓰을모양인가」 오모조록 으니왔스면 조흐련만은
 필경 쓰을일이요 그러케 날마다와서는 너그제일 무서와서 못살겠스니 오날
 오거든 령감이 잘 일너보지요 다시는 오지못하게 하야 주셔요 「그것이야
 내들엇지 장담할슈마있나 밋천것을그지코」 밋천것이 날마다오닛사 나는더
 무섭지요 슈일이든 병원에서 나오지안코 령감이러야 집에 계시는새그 겪고

나 혼저 잇슬세오면 진영나는 못견티겟소」 「오모리호지만은 성흔스름도 이니
 요 밋쳐서 그런것을 낸들엇지하는야 말이요」 남편다려 말을하나 조금도 상
 쾌흔티답이 나오지이니 흠을보고 공씨는 더욱 탁심되야 고귀를 혼편으로 기우
 리고 「여보 령감도 그녀편네를 처치할슈마업거든 순스에게라도 말을하야서
 다려드마 정치를하게 하시구료」 김정연은 허웃는드 「그렇게 요란히 구지
 말고 감안이잇셔요」 글세너마 요란히 구는것이요 그계집이오면 실죽흔마음
 이나니서 그러치요」 「밋천것을 조와할스름은 어디잇나」 「츄브터 종일도록
 흥날이호리여 엷은허사발도 보이지이니 흥던날 점々어두어지며 오죽도 볼날
 에 추의마 바람에셔기여 스름에몸을 펄박하며 집집마다 첨에는 불빛이 비
 로소 나타는다 일진광풍이 쌍우에모리와 씨살을모라마 일어나며 그바람이
 지너여간후로 괴상흔 늑우부인 혼스름이 나타는다 반박이넘은 머리털은 훗
 트러지고 바람에 나뵈기며 김정연의집을 향하야은다 그녀즈는 지치여잇는
 디문을 열너하다가 고리에걸니여 열니지이니 흠으로 소리를 놓히하야 「문여
 러쥬우」 여보쥬인업소 쥬인이업셔요」 바람은 곳치지이니하고 씨々로 불어
 지되여마는 소리들니는티 그녀즈의 문밖게서 부르노소리에 공씨는 삼짱놀넌
 이며 김정연의 무릎을쭈 짜르며 「여보령감 저소리좀 들어보오 쟚와구료」
 「응 그거인마」 김정연은 마음에 듯치가못흔 모양으로 등불을켜들고 문살을

향하야마며 「거괴셔 찻흔스름이 누구요」 「쥬인이 게심나마」 「네 쥬인은여
 괴잇소 그러나 당심은누구요」 티답은 하지이니하고 쥬열거리노 목소리말들
 닌다 「글세누구인데 티답이 업단말이요」 「얼골을보면알자요 그러케 돈은
 만이 버려셔 다무엇을하고 집은밤낮이러흔마 여보어셔문이나 열어쥬우」 하
 며 티문을 두다린다 김정연은 문을열치이니하고 그티로 쫓츠보낼마하얏스나
 그녀즈의 동작이 그저도라마지는 인이할듯흔코로 좌우간 혼번 나셔 엇더흔
 스름인지 보리라하고 문시고리를 벗기여쥬의 과연 듯던바와듯흔 늑흔녀즈흔
 스름이 들어온다 「너마 쥬인김정연이요 그러나 무슨 불이잇소」 「올치네
 마 김정연이로구나」 하며 그녀즈는 두손을 얼골에다이고 흘々누기며은다
 김정연은 무산연고인자 지못하야 눈을 휘둥그렷게뜨고 올고잇는 모양을
 이상이 드러다보고잇다 「알슈업는일도 다잇고 대체 무슨일인지는 알슈업스
 나 내게할말이 잇다하는말이요」 그녀즈는 올기를마지이니하다마 흥연 김정
 연의 압호로 달너들며 소리를 놓히절으며 「이놈 이천하에 몃슬도쳐놈
 이」 「이게별은간 무슨소리야 응」 「이몃슬놈 이도적놈 나갓흔 늑흔것이
 는 쥬연을하지은코 부모에게 호도하고 암전흔 우리들이 쥬녀을하니...」 나
 로말하면 점자는점은이요 잘살든협제로 인제는 후스마얻어지게 되얏스니 너
 일모리 머느리를 보려고흥던것을 이모양이 되얏스니 누마이런집은에 쟚저서

을 며느리로 주겠느냐 혼인 후만 갖드리도 관계치니 할것을...:~:~:~:우리의 달
 이 남이...는 지금 열...춤살이 되얏셔도...비업는 과부의 지식으로 귀이귀
 자...인제는 너...원슈를 갑할터이니 그런줄알라... 김정련은 그부인의 위험
 혼동... 놀녀...염호로 파항야스며... 정말참 밋친스름이로구면...늘은부
 인은 노...점...더항야 두발로 쌍바닥을 구르며... 들은... 싸져잇는니를 들
 어내여 자금에 김정연의 살을물고 피를마실듯이 원통한마음이...슴에...득한
 목으로 김정연을 치여드본다...도라간 우리남편이 림종시에 눈울참... 좀지
 못...면셔...모조록...죽은후에 잘기르라고 신...부닥을밧은 남의외...달을속
 이여셔 증역을항게...말는것이 네...이고누구나 너는...너편네라도 업슈
 히녀여셔 네마음뒤로 남의집을 결단을녀...노앗지만은...도 갈한...만...지면
 네목숨...것은 어...름에 업서질는지...자못한다 이런소리를 들으면...마녀
 도...무섭지...늘은부인은 흘런 쾌활하게 한번웃는다...우리며...리가암이...
 ...것은...침선방적에 무엇을 못하는것이잇는 봉치를 밧...곳...그잇흔날은
 실랑이 초레...려오기를 기다리다...초레는 허라...지...니...고 증역...려가...
 말이나...이...남...雅男...네...이게무슨 희익이나...어셔...모관...입고 장가
 들...가...라...응...가...잠을...이...자고 밤이면 네장가들제 입히려고 지...노은...
 ...

여기있다...어셔...업...라...어셔가셔...악시를 다리고오나라...도...어셔...
 리를보면...힘도...얼마...덜...나...이...네...도...구...는...
 의...고...라...보...져...어셔...는...며...리...를...보고...다...
 처...얼...거...다...가...홀...런...허...리에...초...고...잇...던...보...동...이...를...
 ...노...으며...자...어셔...네...목...자...를...이...속...에...담...
 ...에...떠...러...자...면...얼...핏...담...가...지...고...가...자...
 ...다...시...싸...를...구...버...보...며...또...는...김...정...연...의...얼...골...을...
 ...괴...이...호...목...소...리...로...울...기...도...항...며...웃...기...도...항...며...
 ...당...연...은...처...음...에...는...스...실...의...엇...더...함...을...아...지...
 ...이...가...엇...지...항...얏...니...항...는...말...을...듯...고...비...로...쇼...
 ...항...얏...더...라...그...늘...은...부...인...의...아...달...리...아...남...
 ...얏...디...니...스...서...위...조...죄...
 ...과...월...에...쳐...항...얏...슴...으로...그...모...친...은...일...로...인...항...야...
 ...티...여...성...광...항...얏...더...라...그...와...
 ...연...은...조...의...그...
 ...안...이...
 ...지...중...에...서...그...
 ...

녀의 악한수단을 버셔나지 못하고 저물을 쟁앗긴후 또는 몸서지 바리게 되
 었스니 법률의 조분은 조곰도 용서함이 없고 어리고 경박업는 리아남은 늙은
 모친의 외로와함을 생각할 여가도 없시 옥졸의 밥이 되였다 슬푸다 아달을
 감옥으로 보내고 호을로 집에 잇서 그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 모친의 마음이
 었더하리요 부모에게 호도하고 친척에게 돈목하야 린리가모도 칭찬하야
 못 곳치 아름다운 규슈가 잇서 혼인날을 턱하야 턱일날이 림박함의 호로만지
 니이면 초례를 낼것을 불행히 감옥에 신세질몸이 되었슴으로 임의 언약하
 였던 혼약은 조연히 파괴되고 요사이로 아름다운 신랑제목이 잇서서 동흥호
 으로 규슈의집에서는 반가히 여인다함을듯고 그 모친은 여러가지로 원흥호마
 음과 분홍마음과 슬픈마음에 드터여 일으렷더라 김명연은 무이히 실성호스
 름을 반항하니 보다 오히려 공순히 대답하야 보낸이 가항리라하야 「허허니
 목이 그닥지는 욕심이 날것또하면 너목을 줄것이니 문밖그로 너아갑시다 어
 셔이러느시오」 늙은부인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네말은 모다 거진말이
 다 이놈 네손으로 우리아들을 속이고 돈만 빼아슬되로 실견배았고 그리도부
 족하야서 증역까지하게 만다라노앗말이야 부모에게 호성하는 이세상에다
 시업는 우리아들을... 천하에 몹쓸놈도 다있다 그리도 모르는체하네」 편처
 잇는유디를 김명연의 턱아리에다 이리 가슴이 뒤집히는듯한 비린늑음을서가코

를씨른다 김명연은 얼굴을 썩프리고 고기를 뒤으로 돌니늑 늙은부인은 김명
 연의 얼굴을 쳐다보며 두팔을 버리고 손벽을치고 강동강동 뛰놀면서 「을
 치을치 저것보아라 네목아지가 제절노점々 가늘어지는고느 인제곳 쌍에씩씩
 러지겟다」 하며 썰러지는목을 유다에 바드려고 두손으로 받쳐들고 이리다어
 며 썰리다인다 김명연은 두손으로 밀쳐 대문밖그로 너여보너려하네 늙은부
 인은 문설주를 더휘잡고 닷도면서 「을치 네가 느까지 이놈은 언덕에서 썰러
 처 죽이려하느구나 이도적놈아 이원슈의놈아」 하며 벽력가치 소리를 지른다
 김명연은 힘을다하야 문밖그로 너여밀쳐고 안으로대문을 다々걸었다라 밧그
 로서는 문을 두다리며 오히려 옥설호기를 마지안이하며 「이놈아 이도적놈아
 어서 네목아지를 어서다고」 김명연은 문틈으로 밧곳모양을 엿보고잇는디 방
 안에서 몸을벌벌떨며 감히밧그로너아오지못하든 공씨는 광인을 문밖게 너여
 썰겨남을 보고하야 비로쇼 밧곳초를 감안감안이하야 김명연의 뒤으로와서 옷
 짓락을 잡아다리며 「여보령감 그만 너바려두고 어서방으로 들어갑시다」 하
 며 공씨는 김명연을 억지로 이끌고 방안으로 들어왔는디 늙은부인은 오히려
 도라가지안이하고 홀노 소리를지르며 무죄한아들이 김명연으로하야서 무실
 혼죄명을쓰고 증역을하게된 사실의 짓초지종을말하고 호을노을며 호을노부
 르지져 밤이늦도록 도라감을 이져바리고 하늘을우러려 통곡한다

아들의 원슈되는 김명연의 머리를 엮고 조항야 황혼씩마다 실성호 늑은부인의
 초조음이 거의 팔구초에 일으렷더라 쫓츠네이나 오허려 도라가지안이하고 문
 압헤잇셔 썩느 지안이함을 요란이항야 무익한 일인고로 다만암의로 거취를맛
 기여 두엇더라 김명연은 그와웃흔 광인이 놀마다 문압을 썩느 지안이한다
 지라도 능히혼침안에 지앙은 주저못하리니 혼곳이웃기와 다름업는물건이 문
 압헤 누어잇슴과 조금도 다름이업시 생각하엿스나 눈마진술입파리 웃흔머리
 털을 흐트러치고 요괴(妖怪)의 불빛갓흔눈을 사면으로 휘두르면서 우셔도보
 며 울어도보며 노하여도보고 다시 썩져저도본다 침침흔칠야에 호을노 하날
 을 우러러슬픔과 원함을 호소하며 비린늑음을식나는 유지를 펴쳐들고 드만스
 를의 머리를 구르고조항는 광인(狂人)이여 비록 저금에는 큰히를 더할지
 안이홀지라도 못츠네에는 그집에 일키디환을 조어네이리로다 스름의 골슈에
 스모치는 호마음은 불로도 능히 물을 만들것이요 산으로도 능히 바다를일올
 것이요 강렬을찌키이며 바회를 부시는힘도 업슴이안이늘 하물며 혼집을떨
 향며 혼가죽을 살히함에는 손바닥을 뒤집느니 보다도 도로혀 용이할것이니
 두렵도다 오모조록 가늠가 무사티평하기를 공씨부인은 심중으로 축원하고잇
 다 남편되는 김명연은 리오남(李雅男)이가 스셔위조흔죄로 감옥의형벌을 취

함이모다 조과의 흥계중에서 나옴은 그안희공씨다려 일으지안이 흥였는고로
 진실흔 죄과는 성광훈부인의 아들에게잇고 우리집안에 티항야는 추호라도
 남에게 원망을 밧을리유도업고 그와웃흔일이 일어남도 피츠영업상승패에 잇
 슴이요 또느 디차상(貸借上)의 손히가도라옴을 생각하면 츄치못하는 일이
 라도 흥함은 장스비의관습이라항며 공씨는 스스로밧고 그부인의성광함은 남
 편외소위로 인연항야 전혀그러함이 안이라싱각하엿더라 그러나 스름의 어버
 이된자의 조손을사랑하는 간절흔정리를 생각할자라 티키 이와갓흔 스정으로
 스름의원망을 스나니 원망흔후에는 반다시 지앙이잇슬진디 다만마음에 소스
 노오는것은 두려운것뿐이라 날을두고 황혼씩이면 문압해 초조음은 은근히 우
 리의목숨을 앗고조함은안이며 문박게셔 썩느 지안이함은 그원근흔 마음이셔
 리여 호마음 혼결심으로 우리부부두스름을 저주(呪呪)함이 은닌가항야 기외
 밧음에 일음의 공씨는 황혼씩에 일은후부터는 괴이호마음을 진정치못하고
 념불 나무이타불이나항야 두려운마음을 이저바리더라 이늘은 불바름이더
 옥심항야 낮부터 흐린일기에 썩설이 하날을 가리우고 나무가지는 혼들니며
 일석이 황혼에일이미 더욱풍세가 심항며 만호가 바람속에 잠기여잇는 밤이
 되엿더라 김명연의집에도 철하으리에잇는 등불도 바람에 살으지고 스면으로
 썩여잇는 류리조각이 두어조각이나 썩여썩러졌스나 방안에 고요히 켜노은등

불빛은 김녕연의 저녁상디항야 반주를 시작호 소반우를 빗초였다 화로우에 남
 비에서 부글부글뜨리는것은 안주를 준비항야스음이니 이늘저녁에는 이주도
 그실성호 스름이 오지니항였다라 공씨는 호편으로는 의흥며 또호편으로
 는적이 겁나는가슴이 가라안듯시 깃거워하는 모양이 보이여 「밋천계집도
 오늘날것은 바람에는 흘슈업는보오 다른때것호면 밧셔왔슬터인디 입디지니
 을제는 오늘날은마이니오는것이지오 모리 밋천이라도 이바람에야 엇지나스
 겿쇼 그리도 붓쳐넘씩 쇼원호고 념불호호험이 있나보오」 김녕연은 술잔을연
 항야 숨스비거우르며 「히허오늘은 가든중데일 술맛이 조와이그려 그밋천
 누라장이가 오지니항니서 오기로 무셔올것은 업지만은 공연호마음에는 실
 족항야셔 그것이와셔 문박게 잇는때는 음식이다 맛이업는걸 「이이고 그러코
 말고요 나는요스이 꿈에마다 그누라장이가 보여셔피항면 쫓초오고 숨어도
 초조와셔 죽이려는것갓치 덤비는것을 간신히 버셔셔 다라다가 언덕우에
 서 쫓떠러지는셔음에 삼작놀뉘 쉼다르면 꿈이요구료 쫓이 쫓호르코 그제야
 가슴이 시원하게 숨이노오니 놀마다 그런호호 꿈을쑤고 엇지살겿쇼 인제는
 다시 오지니항였스면 조호련만」 불어오고 불어가는 바람은 디히에 물결치
 는듯호호리 들리며 심호호때에는 집이올니고 괴와가 버셔져 천병만마가 스면
 으로 모라오는듯호디 드만셔로항항야 방안에잇는 김녕연의 부부두사람의얼

골만 적적히 불이 빗초였다라 성광호부인은 과연그날은 일이지이니 항였다라
 깃거항며 또는 취항였다 김녕연의 부부는 이날밤은 두발을 길게싸고 잠이들
 엇더라 바람은 곳치지안코 더욱밍렬항야 런다가오란항며 야적이 쳐참호디 흘
 연이와갓치 후암암호야반에 김녕연의집 뒤으로부터 일도화광이 일어는다 쳐
 음에는 집에가리여 무산불괴운인지 아지못항였다가 죠금있더니 짐승과 쳇하
 가 잠판보이고 다시 살아지미 이는심호호바람에 불괴운이 우으로감히 울으지
 못호고 바람에 쫓기여 아리로 썰니엿습니다 조금있다가 다시화광이 은은히
 보이더니 바람이저니여간후 다시 몰아오는바람이 업는틈을타셔 홀홀 썩여울
 은는화염은 그때야 비로소 스면을 빗초였다라 순식시간에 불빛은 종횡으로
 만연항야 김녕연의집은 화염에 잠기엿스나 불길은 하늘을 티우고 연기는 중
 천에 호터져 그스이 붓터 때때로 짐이문혀져 주저안는쇼리인지 광々호는소
 리 또호쳐참항며 집에전후는 모다불속에 못치엿더라 처음에는 화광중에서
 형용을 지셔히 보지못항였다니 황호이면오던 늘은부인이 화염을 업수히녀이
 고 올연이 호가온디셔々 뛰놀며소래항야 천연호디 얼굴은 거의익을듯시되도
 록 붉은모양은 지양을맞호 귀녀(鬼女)가 나타남인가 의심호다 실로그녀는
 호발초도 썩여뉘치아니호고 불이잘일고 못이는것을 감독호는듯호 목조로
 바람과 연기와 화광이 호호씩기여 힘을다항야 닳토는것을 얼마나 상패히 성

각하얏는지 우음을씩우는 얼골은 이제상에 다시또 짝이업스리로다 바름소태
 심흔연고로 이웃에 잠든스름이라도 이와갓치 불이심하얏슴은 아지못하야 혼
 스름도 불을쓰러 쇼동하는스름도업다 집은임의 쥬져안졌는디 그틈으로써 혼
 쇼태로 부르져는 스름이잇스니 이는 늘은부인이라 희희하고 혼번놀히우섯
 더라 린리에 여러스름들이 비로쇼 화제가잇슴을 알고 불을구하노라 료란히
 들날때에는 김정연의집은 임의 화염중에싸이여 문호마다 불뿔이 쏘다져나오
 며 화제를 도읍는바름은 곳치지아니하야 쇼방디의힘으로도 능히 여제치못하
 고 이웃집삼사호쳐지 연쇼된후 그잇흔날 아침에 일으러셔야 비로소 진화(鎭
 火)하엿더라 김정연의집은 썩설흔아도 남기지안이하고 혼쇼자혹과 지가되엿
 는디 날이박도록 쥬인김정연의 부부는 조치가업슴을 고이히녀이며 무슴과실
 로 열화중에 장스름은 안인가 의심하야 경찰관리는 스방으로 수척하얏더라
 쓰거운저아래로서 반은라고 반은 부프러올은 신체흔키를 발견하엿스니 스름
 의눈으로 츄아보지못하를 참상을 일우엇스나 간신히 그신테는 김정연의처 공
 썩인줄 알앗는고로 다시 스면으로 김정연의죽음을 츄지나 용이히알기어렵더
 니 마당아래 광잇는 근처에서 살아져죽은 스람의뼈를 츄지녀엿스니 이는곳
 김정연의 죽고남아지 유골(遺骨)이러라 슬프다 짐과몸과 상고가모다 하로밤
 스이에 연기와갓치 살아지고 김정연의조치는 북은혹과 거문외에는 다시보

이는것이업고 다만 강풍열화중에서 무스히 호을노 무스이보존흔것은 김정연
 의방안에 노여잇던 금고(金庫)뿐이라 미성군에 내려가 전도에진력하던 김
 정연의아달 김도식(金道植)은 이때맛참 외방으로 전도를 다니는길인고로 이
 괴별을 즉시듯지못하고 리슈일은 그날로급히 병원에서 그곳까지 나아 왔더
 라 슈일은 스오일후에 퇴원(退院)하 예정이러니 뜻박게 이와갓흔 큰일이 성
 기엿슴으로 병여의몸을 간신히 움작이여 제반일을 처리하며 한편으로 김도
 식의 가져잇는곳으로 통고하야 속히 김도식의 도라오기만 슈일은 고덕하고
 있다. 슈일은 오년동안을 한가죽과다름이업시 지니이다가 하로밤스이에 혼
 스람도 남기지안이하고 짐까지 가산까지 바람압헤 썩구름이 되엿스니 슈일
 은 생각이 이에일으리 니의몸도 이날스밤으로 무산디경을 당흔는지 헤아리
 기어려움과 무상한비회가가슴에 스못천다. 연일불던 바람이 이날밤은 적
 이긋치고 몽롱흔일석에 만호가 모도고요히 잠드렀다 화제후에 남아잇는악
 혼니음식은 아죽도 스면에 남아잇는디 스람의발에 밟피인죄와 흙은 물에져
 스잇고 타고남아지 기동과셔가래는 이곳저곳에 쓰러져서 만목이 슈참하야 오
 히려 남아지더운괴운은 바람이 움작일제마다 스람의얼골을 음습한다. 슈일
 은 병여의몸을 막디에 의지하고 호을노 달을향하야 창연히 이곳에서셔있다
 전일에 쥬인의집 마로와방과 조그의거처하던 처소가 려력히 생각나며 김정

런부부의 얼굴이 눈압해 보이는것같은디 이제는 적정한비인러가 되었스니 인
 형의 처량한감동이 스스로 금키어려우며 때때로 비명에 목숨을바린 김정연
 의부부와 조과의신제를 생각하고 눈물이 양혈에흐름을 써닫지못한다. 슈일
 은 이와가치 비회를 여제치못하며 그곳을출아 썩는지못하고 이리저리 비회
 할즈음에 밤쇼래로 멀리들니던 인력거가 살갓치모라와 그곳에서 저지흥며그
 우에 타고있던사람은 급히노리며 슈일의 셔셔잇는곳을 향하야 아온다. 비
 창한심스에 정신업시 셔셔잇든 슈일은 사람의 발즈최에 비로쇼 자과의 정신
 을추리고 얼굴을들어 엇다한사람이 오노고 바라보논디. 「아-이게 리슈일씨
 안이요」 「아-이게 누구시요 인제야 올라오시닌구료」 그사람은 기다리고 기
 느리든 김도식이라 슈일은 반가히 손목을잡고 셔로향하야 달아래에 얼굴을
 바라보고 섰스나 졸련히 말한바를 셔로아지못한다 슈일은비로쇼 눈물에져진
 목소래로. 「이게 무슨변이오니가 무엇이라고 할말씀이 업습니다」 「나도집에
 잇지못하고 로형도 병환중으로 개신석에 이러한변고가나셔 로형은얼마는이
 를 쓰섯소」 「천만에말씀을 하시닌구료 이일이늘제도는는병원에잇셔셔 아즉
 도나오지못했섯는데 이러한일이 생긴줄은 조금도 의지못하고 잇다가셔
 벽이나되어셔야 비로소알고 와셔분즉 이와가흔 출혹한모양이 되었습니다가
 러 지금와셔 말씀을할들 소용이 잇습니가만은 니라도집에 잇섯스면 이지경

서지논 안이긋슬것을 흥는싱각이 업지안잇습니다 주봉으로 말씀을 흥드리도
 그지경서지논 흥지안이 흥실줄을 알앗논디 엇지된일인지 알슈업스나 슈한이
 그뿐이시던지 너모도 원흥하외다」 김도식은 감고잇는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
 듯하고 이윽이 셔셔잇더니. 「그러하니서 혼아도 건지 못하고 모다 랏소구
 료」 「네 다른것도 모도라고 단지 금고혼아만 남아잇습디다」 「금고가 남아셔
 요 그속에는 무엇이 들어드란말이요」 「그속에는 돈도 좀들잇지요만은 남의
 문서와 종셔 수표등물이 들어섯지요」 「엇지하야셔 그것이 남아잇섯드란말
 이요 데일그것이 라셔바리드면 조할것을」 하며 김도식은 오히려 금고가남아
 잇슴을 분히녀이논 모양이라 슈일은 김도식의 의견이 조과의부친과 셔로
 지안이함을 아논고로 북々히셔셔 디답할바를 아지못한다 「집이라고 제간이
 단것은 니가조곰도 원흥히녀이지안이하오 도로혀 라야올은일이지 그러치만
 은 우리부모가 도라가신것을 눈물호점이라도 흘니고 슬허하는스름도 우리두
 스름뿐이요그외에는 세상에서 누가흔스름인들 불상하다는 스름이 잇슬리가
 잇소 오히려 다행이녀이고 깃거워할 스름뿐일터이니 그런싱각을흥면 나논디
 옥 우리부모가 불상하고 유한이 골슈에 사못치요」 그러나 굿칠바를 아지못
 하고 흐르는것은 은이의 눈물이라 세상에 수호를 헤아리지못하도록 만은스름
 중에 뉘가 김정연에죽임을 위하야 지축(紙燭)의 부의(賻儀) 흥장인들 보논리

요 항상 그 부모는 그 아달의 간하는 말을 듣지 안이 하며 쓰리여 아달의 사랑함도 일즉이 아지 못하얏스며 그 아달은 부모를 흠집안에서 효양치 못함을 이제 일으러 누웃치고 슬허하다 염々(炎々)한 명화(猛火)중에서 부모는 압푸고 답々호고 통으로 구원을 열마나 불넷스리요 김도식은 생각이 이에 얼으미 흐르는것은 눈물이라. 「세상스름들이 쥬인영감이 도라가신것을 절거워 하겟다하시니 아모리 세상스름은 그리하드리도 당신호분의 마음으로 도라가신량친씩서는 디하에 셔々라도 편안히 눈을감우시겟지요 이런말씀을 하는것이 실례지요만은 당신이 오늘々々지 량친을 되시고 개신것을 너의 몸을 가만이 볼것갓흐면 엇더케 불어운지 아지 못하겟소 이제상에서 부모와 조식갓치 셔로는회치안이하고 무간호것은 업지요 나는 팔구세씩 부터 부모업는 외로운 아히로 남에게업슴만 밧앗지요 너모도 남에게업슴을 밧으니씩 그것이 분호고 원통하야셔 조포조기하다가 드디여 스름에하는도리를 하지 못하고 이렷케 못되게하얏습니다 원리를 말하면 모다제가 못싱기고 제에 잘못으로하야금 이모양이 되얏지만은 디체를 말하면 쳃지는 부모가 업섯든연고로 이렷호 불행호몸이 되얏습니다 그러호 몸으로도 오히려 오늘날지 목숨을 보전하야 가지고잇슴게지요만은 나와호호 스름도 잇는것을 생각하야보시고 마음을위로하셔요」슈

일이 가 김도식과 호가지로 루々히 리약이함도 이날이 처음이니 슈일이 가 말을 할지 안이 하얏슬뿐이 아니라 김도식은 슈일을 멀리하고 갓가이 말을스피이지도 아니하얏스니 그연고는 조과의부친의 착하지 못호일을 은근이 도아셔가 위 조결위하호는 스름으로 보앗는고로 슈일을 평일에 보기를 금슈갓치 알고천압지안이 하얏더니 이제 슈일의하는말을 드르미 비로소 스름의 마음이 잇는가 의심호엿더라 「그러면 로형의 지금쳐지는 스름에 할노릇이 안이라고하는말이요」 「과연그렷소이다 당신다려 인제말씀이지 이렷호 남에 못할노릇을호면서 엇지 스름의 짓시라하겟습니까」 김도식은 한참이나 말을안이하고 고기를숙이고 침음하다가 홀노고이를 들고 수일을 바라보며 「그러면로형도 인제부터는 스름노릇을 하야보시오구료」 하며 김도식은 슬픈회포와 간곡호 정리가 가득호 모양으로 수일을 쳐웃치듯시 말을한다 「네! 그져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즉동안은 그져너바려 두어 쥬시요」 「엇저하야셔 그러호오」 「지금와셔 다시 스름노릇을 하는체호 필료도업습니다」 「로형은 필료가업다고말하저만은 나는 필료가잇는줄노 알고 권고하는말이요」 「당신말씀을 너가못알아듯는것도 안이올시다 당신되에 오늘날셔지 나는신세를 지코잇셔 한집안갓치 저너여도 당신과셔로 친밀히 이약이하기는 오늘날이 처음이요 나는 엇디호위인저 당신은아마 저셔히 아지 못하실 터이지요만은 나는 당신의성결과

인격을 저저히 알고 있습니다. 결박하고 정직하신 도덕가(道德家)의 압박해서 감히 이러한 비열(卑劣)한 스름에 심수를 맡음하는 것이 도로혀 붓그럽고 하는 말마다 모다 정당치 못한 일뿐인 터 바르고 높으신 귀에 들리게 하는 것도 실례로 하는 것이 안이니 할 귀로는 들으시고 할 귀로는 흘니여 바리시기를 바름니다. 김도식은 귀를 기우리고. 「응 무신말심인지 어서하시오」 「당신 말씀이 인제는 스름노릇을 하고 하시니 니마음에도 얼마큼 조흔지 알슈업습니다. 이러한 영업이 스름으로는 하지 못할 줄은 알면서도 부득이하려하는 이 스름에게 숨인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게 생각하면서 도 곳야 하는 것은 다시 설원도 하지 못할 원흉한 스름이 있어서 그분류리로 이모양이 되었습니다. 만일 니가 술이라도 먹을 줄 알았스면 화스김에 술이라도 마시여 목숨을 씌어 바렸을는지도 하지 못할 것을 술은 본리에 먹지 못하고 저스름을 결심은 업는 연고로 바로 말할면 변치 못할 스름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줄로 알아주시오」 김도식은 이와 같은 수일의 말에 은연히 감동되는 괴석이 보인다. 「지금 말씀을 드려주면 들너주시구료」 「그렇듯 어리석은 스름의 일들 들으시면 무엇을 흠뻑가 이 일은 남다려 결단코 말을 아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만은 더 강령을 말씀할 것 못호

면 남의 업슴도 밧고 저물업는 스름으로 원흉이 속은 일이 있섯서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김해 못지 은이 할 것소 그러나 노형도 이 영업이 불가한 줄을 아시논구료 우리 아버지께서는 붓그러운 줄도 하지 못하고 도로혀 썩스흔 일인 듯시 알고 계시니 그 속에 나는 었더하게 민망하고 답답한 지 었더흔 썩는 아바지 압박해서 초라리 죽드리도 아버지의 그릇드신 마음을 도리키리라 생각하였드니 불의에 이와 같은 변을 당하였스니 나는 아버지상을 당야 설은 마음보다 아버지께서 다시 마음을 못치시지 못하고 도라가신 것이 유한이 되고 부모를 팀종도 못할 것은 저식된 스름의 평정한이 될 듯하시오 그러하니 우리 아버지께서 기심(改心)하시지 못하리신에 노형이나 마음을 못치지고 정당한 일을 할야 하시면 하나님께서라도 노형을 도와주시리라 오니의 유한되는 마음도 얼마큼 적어 질러이니 아모조록 회심하시오 노형의 말씀을 드려주 알슈업는 스름을 알면서도 이 일을 할다 하시나 오리스동은 스과이든 정분으로 우리 부모의 도라가신 영업을 조흔 곳으로 띤도 (遷道)하고 그 유족을 구원하시야 주는 생각으로 빛노리는 그만두시오 우리 아버지가 가지시고 계시든 재산은 모다 노형을 줄 거시니 그것을 저분으로 할야 가지고 계상에 유익한 스업을 시작하시야 하시면 니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소 그 뿐 아니라 우리 부모가 노형을 사랑하시야 하시고 노형이 우리 부모를 천부모와 못치 아시던 정분을 생각할 것 못호면 우리 아버지

티신에 노형이 그릇들었던마음을 꾀쳐주시오」 다만 듯고잇는 수일은 좌우로
눈물을 씨스며 티답이엿스나 그 가슴속에는 여러가지로 곱념이 왕티흐다。

장 한 몽 권 지 이 종

大正五年十二月二十日 初版發行
大正十三年一月二十五日 印刷
大正十三年一月三十日 六版發行

長恨夢 第二卷

定價金四十錢

京城府堅志洞六十番地

著作兼發行者 朝鮮圖書株式會社

右代表者 洪 淳 泌

京城府公平洞五五番地

印刷者 沈 禹 澤

京城府公平洞五五番地

印刷所 大東印刷株式會社

京城府堅志洞六十番地

發行所 朝鮮圖書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七七番
振替京城八二五五番

